

1월 25일까지 세종M씨어터 무대 올라

잃어버린 꿈을 찾아 떠나는



가족뮤지컬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게임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디지털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아이들과 이 때문에 속 태우는 부모 자식 간의 분장 화두는 '게임'이다. 이를 겨냥한 가족 뮤지컬 '손오공'이 서울 세종M씨어터에서 1월 25일까지 무대에 오른다. 겨울방학 동안 집안에만 틀어박혀 게임만하며 노는 아이들 때문에 한숨 짓는 부모들을 위한 희소식이다.

뮤지컬 손오공은 중국 명나라 시대의 소설 <서유기>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삼장(三藏)법사인 현장 스님과 함께 한 손오공 일행의 모험담을 원작으로 한 대중에게 친숙한 소재다. 그 소설은 실제 629년부터 645년에 걸쳐 당나라 서안(장안)에서 중앙아시아의 사막지대를 통해 파미르고원을 경유해 인도에 이르는 길을 구법여행 했던 현장 스님의 17년간 기록인 <대당서역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당시 현장 스님의 화두는 "불법의 본의는 과연 무엇일까? 혹은 우리는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코끼리의 전체 모양을 알 수 있을까? 유일한 방법은 직접 인도에 가서 알아보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14세기가 흐른 현재, 삼장 법사는 서유기 마법학교의 교장선생님으로 환생했다. 가족이나 반들반들한 대머리의 소유자인 삼장 법사 교장선생님의 머리숱이 부족 줄어드는 이유는 마법학교 학생들이 공부에 안하고 게임에만 빠져있기 때문이다. 게임 챔피언 삼총사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을 보다 못한 교장 선생님은 이들에게 게임 금지령을 내리고 잃어버린 자신의 꿈을 찾아오라는 숙제를 내준다. 인터넷 검색으로 꿈을 찾으려는 사오정과 꿈을 흡수평에 주문하겠다는 저팔계. 과연 삼총사는 삼장 법사의 화두를 타파할 수 있을까?

더욱이 이번 공연은 뮤지컬 '그리스' 연출가로 유명한 정태영과, KBS 'TV유치원 하나둘셋'의 극작가 박수경, 뮤지컬 '나인'과 '지킬앤하이드'의 음악을 작·편곡한 원미술 등 최고의 제작진에 의해 완성됐다. 초대형 난텐도 게임기 형태로 제작된 무대 위에서 다양하게 연출되는 3D 애니메이션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꿈을 찾는 모험은 '게임 세상이 아이들의 미래라면 지혜로운 궁정의 주체가 되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02)399-1114

가연숙 기자 onmlflower@buddhapia.com

■제7회 유심작품상 수상자 발표

김재홍 유안진 백이운 박찬일 선정



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 지관)는 '제7회 유심작품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현대한국문학 작품과 문학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이번 시상식은 △특별상에 김재홍(평론가, 경희대 교수) △시 부문에 유안진(시인, 서울대 명예교수) △시 부문에 백이운(시인, 시조세계 발행인) △시조 부문에 박찬일(시인, 평론가) 평론집 <근대:이항대립체계의 실제>가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8월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개최되는 만해축전 때 진행된다.

특별상을 수상한 김재홍은 1969년 첫 평론 <한국현대시 은유형태의 분석론>으로 등단, 40여 년 간 반자일등의 마음으로 비평과 학문의 길을 걸어왔다. 주간 <시와 시학>을 1990년 창간 주재해 현재까지 72호를 발행했으며 지난해 11월에 한국시집과 현대시박물관을 개관했다.

이가림(인하대 교수) 심사위원은 수상자에 대해 "섬 없이 시 비평 분야의 균형 잡힌 저술



김재홍 교수



유안진 교수



백이운 시인



박찬일 시인

가운데서도 다완(茶碗) 같은 존재라고 비유한다. 작품을 통해 위로받고 때로는 도반이 된다고 말하는 그는 1977년 월간 <시문학>으로 등단, 한국여류시조문학회 상임이사, 한국시조

시인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재현 심사위원은 "이번 수상작이 삶의 본질적 의미를 노래한 일종의 존재론적 시로서 불교적 세계관에 기대어 사물을 통찰하고 자아를 성찰하는 깊은 사유의 세계가 눈길을 끈다"고 평했다.

평론 부문 수상자 박찬일은 1993년 시인으로 등단한 이래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세계를 보여준 개성적인 중견 시인이다. 시와 시론, 평론에서 모더니즘 미학의 특성과 한계를 강조했으며 이번 수상작은 그동안의 탐구에 대한 결실이다.

이승훈(한양대 명예교수) 심사위원은 "휴머니즘의 비판적 입장에 선 그가 철학자 데리다(1930-2004)에 기대어 이항대립체계를 해제하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며 "수상작은 근대라는 유희와 새로운 시 쓰기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평했다. (02)739-5781

시조 부문 수상자 백이운은 시조를 찾그릇

가연숙 기자

한국현대시 100주년 기념 '아름다운 동행'展

그림을 예술의 꽃에 비유한다면, 시는 정신의 열매다. 한국 현대시 100주년을 기념해 시와 그림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展이 열리고 있어 화제다. 한국 현대시와 회화를 대표하는 주옥같은 작품들은 서울 종로 건지동과 관훈동에 위치한 분화랑에서 1월 23일까지 선보인다.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였고 시인이었던 한용운(1879-1944) 스님이 1926년 간행한 '님의 침묵(회동서관 간행)'과 화가 권옥연의 유화 '작은소녀'가 동행한다. 뿐만 아니라 시인 고은의 시 '그 꽃'과 화가 금동원의 아크릴화 '사유의 숲'이 어울리는 등 50여 편에 달하는 유필의 현대시가 그림과 어우러지면서 문화예술의 교감을 나눈다. 이번 전시는 한국시집과 현대시박물관(관장 김재홍)의 후원으로 열린다. (02)732-2366

가연숙 기자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문화 속 불교

월간 '불교문화' 제호 변경

문화를 통한 불교 포교를 화두로 발간해온 월간 <불교와 문화>가 2009년부터 월간 <불교문화>로 제호를 변경하고 새 출발 했다.

지난 해 12월호 100호 발간을 기점으로 시대의 흐름과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로써 불자만을 위한 잡지의 경계를 넘어 불교를 궁금해하는 일반 독자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소통하게 됐다. 판형을 기존보다 키워 보는 재미를 더했으며 분기별로 영문판을 추

가 발간하고 인터넷 웹진(webzine)을 통해 정보와 지식을 보다 폭넓게 제공한다.



이번호에는 극작가 이운택이 49재를 공연의 미학적 측면으로 해석하는 등 문화현장에서 만나는 불교를 통해 불교문화에 갖는 아름다움을 조명했고, 멕시코 국제불교영화축제와 (주)양과행복 구병진 대표가 말하는 불교로 경제 읽기 등이 소개됐다. (02)719-2606

가연숙 기자

열린마음상담원

선남선녀 인연맺기 대성사

열린마음 대전 포교원 개원

열린마음상담원

- 교육상담
- 선남선녀 성격분석
- 결혼매칭 상담
- 청소년 상담
- 노인행복상담

한국 다중지능 적성 평가원

나의 인생설계

- 지능의 우선순위 파악
- 성격의 유형파악
- 적성에 맞는 직업파악
- 학습방향제시
- 결혼성격분석

다중지능 적성 평가관?

미국하버드대학 교육심리학 박사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과 피문학(지문학)이 접목된 과학적이고 획기적인 적성검사 방법입니다.

현대불교신문 대전지사

취재, 구독, 광고 문의 ☎ 042-223-8214

☎ 042-223-8214

해설스님과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로 예약바랍니다
대전 중구 선화동 아르센아파트 상가 1층 (후문 옆)

대성사 홈페이지 <http://dss.or.kr> | 다음카페 육천대성사 따뜻한 만남 인연맺기 <http://cafe.daum.net/dasungsa>

전 선 간 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SMD, LED전구(복선형)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법당용, 외곽용
- ▶필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신개발품 SMD LED전구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 3W, 5W, 10W
- ▶특 필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권사할,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